

장흥-제주간 여객선 재취항 난항

장흥 노력도 연안항 지정 절차 해수부 전면보류 차질 빚어
2015년 오렌지호 운항 중단 이후 3개 해운사와 계약 무산

한동안 장흥-제주간을 2시간대로 운항하며 인기를 끌었던 쾌속선 오렌지호 운항이 장흥 노력도 연안항 지정 지연과 해운 선사측 계약 무산 등으로 재취항에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장흥군과 여수지방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개항된 장흥군 회진면 소재 '노력항'의 제주간 여객선 운항이 2015년 10월에 취항 선박 쾌속선 오렌지호 운항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순조롭게 추진해 오던 연안항 지정 행정절차가 해운사 산부로부터 전면보류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장흥군은 현재 노력항의 항만 방파제(110m)와 물량장(180m), 주차장

(300대) 등의 규모를 방파제(270m), 물량장(320m), 도제시설(파도막이)를 확대해 국가가 관리하는 연안항으로 지정 '남해안권 도서관광과 물류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취지로 해양수산부에 지난 2013년부터 줄기차게 연안항 지정을 건의했다.

군은 또 노력항에 대한 연안항 지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놓이자 장흥에서 노력항에 이르는 도로망이 개선돼 접근성이 유리한 점을 들어가며 노력항이 단순한 여객항 역할을 넘어 화물선 등이 운항하는 다목적항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해수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중단

된 장흥-제주간 뱃길 재개 움직임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실제로 군은 장흥-제주간 뱃길 재개를 위해 지금까지 3차례(3개 해운업체)에 걸쳐 협약(MOU)을 통해 추진했으나 선사측과의 정작 지원금 규모 협상을 비롯해 외국국적인 여객선의 한국국적 전환, 면허 취득에 따른 선박공모 기준 강화 등 해결해야 할 절차가 만만치 않아 빈번히 재운항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올해 초 장흥군과 MOU를 체결한 J고속해운 선사는 요르단 선박 2500t급(15년식, 쾌속카페리호)을 매수해 지난 6월 26일자로 장흥-제주항간 신규항로 개설 승인 절차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항만청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에 따른 공모 평가기준강화(80점)로 여객운송면허를 포기했다.

이같이 장흥-제주간 정기여객선 재취항이 빈번히 무산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배

만 띄우겠다는 욕심에 재무구조도 빈약한 해운회사들과 MOU 체결만 해놓고 재정지원금 과정에 마찰이 빚어져 취항이 무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흥군 관계자는 "해수부가 현행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에 한해 연안항 지정한다는 원론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개발잠재력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연안항 지정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장흥 노력항과 제주 성산포항간을 취항한 국내 해운업체 대표적인 D그룹 소속 4114t급 쾌속선 오렌지호는 승객 825명과 차량 85대를 승선하고 2시간대 운항으로 전국에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으로는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15년 10월 운항을 중단하기까지 5년 3개월여 동안 아용객만 총 207만명(월 평균 40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동평 영암군수가 껌질째 먹는 씨 없는 청포도 사인머스켓을 살펴보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 껌질째 먹는 청포도 '사인머스켓' 첫 출하

영암산 포도 '사인머스켓'이 본격 출하됐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사인머스켓은 '금정면 사인머스켓연구회'에서 지난 2년간 시설조성 및 재배 관리를 통해 올해 처음 출하하는 것이다.

사인머스켓은 단맛이 강하고 과립이 크며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껌질째 먹는 씨 없는 청포도로 향이 좋아 일명 '망고포도'라 불리며 최근 과수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과실이다.

정찬명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인머스켓은 실제 소득도 일반 포도보다 2배 정도 높고, 일반 과수보다 노동력도 크게 절감되는 유망과수로 농업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정면 사인머스켓연구회는 지난 11일 금정면에서 사인머스켓 평가회를 열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지난 10일 강진산단에 투자협약을 약속한 기업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산단 분양률 높이기 총력전

케이제이환경 등 5개사와 1289억 투자협약 체결

이승욱 강진군수가 취임 후 산단 분양률 높이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개 기업과 잇따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기업 4곳과 호텔 1곳 등 5개 기업과 1289억원 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로 강진산단은 10%대이던 분양률이 30%대까지 올라갔다.

협약을 체결한 케이제이환경은 2만 4136㎡ 부지에 1000억원을 투자해 2019

년까지 자원순환 및 바이오 공장 건설한다.

섬진강협동조합은 9362㎡에 150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한우 및 육우 가공 제조공장을, 코단판넬은 5945㎡부지에 42억원을 투자해 건축용 불연판넬 제조공장을, 가온축산은 9965㎡에 37억원을 들여 흑염소 육가공 공장을 짓는다.

명성호텔은 강진을 평동리 주변 1003㎡에 60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56실의 객실과 연회

장, 식당 등을 갖춘 관광호텔을 건립한다.

군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160여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은 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투자 규모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들은 인사우대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했다.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을 거치는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가 2020년 완공되고 강진-광주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접근성이 향상돼 강진의 투자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며 "임기 내에 강진산단 분양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kwangju.co.kr

퀴즈로 배우는

청렴골든벨 대회

영암군 전 직원 대상 실시

영암군은 지난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는 부서별 대표로 선발된 총90여명의 직원이 팀별, 개인별로 나누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OX퀴즈, 단답형, 주관식 문제 등을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KBS 도전! 골든벨'과 유사한 서바이벌 형식을 취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탁금지법 등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대회에 총무과 대표로 참가한 전동평 영암군수는 "직원들이 함께하는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길 바란다"며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청렴한 영암'을 만드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청렴도가 2016년 4등급에서 작년 3등급으로 상승했으며 올해 2등급 이상 달성을 위해 청렴연극 공연과 청렴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청렴결의대회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시행중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지난 12일 열린 장흥군 관산읍 회주(懷州) 숲 공원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 관산읍 첫 관문 죽교IC에 '회주 숲 공원' 준공

장흥군 관산읍은 지난 12일 죽교IC에서 회주(懷州) 숲 공원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관산읍에 따르면 지역의 첫 관문인 죽교IC의 유흥공간에 소나무와 철쭉 등을 심고 숲 공원을 조성하고 '회주 숲 공원'이라고 이름 지었다.

회주 숲 공원은 장흥 위계 정제공과 중흥, 영광 정씨 학교 중흥, 죽정1구 김주훈 이장, 지정1구 김길중씨 등 지역 주민들의 기부로 완성됐다.

갈현종 관산읍장은 "읍민들이 읍정에 적극 참여해 주고 나눔의 미덕도 몸소 실천해 주니 감격스럽다"며 "그동안 아름다운 환경을 후세까지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산읍에는 회주 숲 공원에 이어 고읍전 생태공원에도 나무를 헌수하겠다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고 사회단체의 봉사활동도 활성화 돼 인근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